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준비상황 점검 “최악의 조건 가정, 준비에 만전을”

안전대책 보고받아
“행사 대비 철저한
인파관리대책 마련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 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지원 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 기관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부안군 등이 함께했다.

한 총리는 먼저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해 숙영지, 텐트, 화장실 사위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부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을 찾은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김재훈 기자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처사가 추모사를 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추모식

오월의 정신, 오늘의 정의

학술제·사진전·민주모지 참배 등 진행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 영령을 기리고 숭고한 오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은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처사 서거식 전북도교육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관련기사 4면)

특히, 올해 행사는 '오월의 정신을, 오월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추모식 외에도 문화공연, 민주모지 참배 등 다양한 행사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

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처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전북도내에서는 기념식 및 추모식 외에도 학술제, 사진전, 민주모지 참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다.

전북간호사회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가 전개하는 불법진료에 대한 업무지시 거부는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tube) 및 T-튜브 교환,

전북간호사회 “준법투쟁 전개할 것”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의료법 명시 간호업무만 수행”

기관 삼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 왔다는 것이 전북 간호사들의 주장

이다. 전북간호회는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업무만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밖에도 전북간호사회는 간호 면허 반납 투쟁도 전개한다. 오는 19일에는 연가투쟁도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의 이번 준법투쟁과 연가투쟁으로 전북의 중소 의료현장에서 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간호사회 관계자는 “면허반납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해 전북의 간호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업무를 할 것이고 오는 19일 연가투쟁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뉴스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 내달 17일 자전거·마라톤 대회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세계 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 지원 등을 위해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 경기)와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개발청을 비롯해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

업으로 열린다.

오는 6월 17일 개발청 앞 남북도로에서 출발해 남북도로를 비롯한 동서도로, 새만금 방조제 등 드넓은 도로를 달리며 새만금 주변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학생중심 미래교육

해냈습니다!

전국 최고의 미래교육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캠퍼스

중앙투자심사 통과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